

오피니언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다시 비극을 만든다

| 조수아 (AI·SW계열·1)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과 학생들이 탄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304명이 차가운 바다에 갇혀 숨졌다. 그중 다수가 고등학생이었다. 열일곱 살,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에 따랐다가 구조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날, 우리는 뉴스 속에서 배가 천천히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 안에서는 “엄마, 무서워”, “살려줘”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에 응답한 구조는 없었다. 구조 헬기는 하늘을 돌기만 했고, 해경은 배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부모들은 눈물로 기

다렸고, 국민들은 화면을 보며 애타게 바라봤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반복된 경고에도 운항을 강행한 선사,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관리당국, 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한 해경과 정부.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날,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존재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책임을 저버렸다.

세월호는 구조조차 시도하지 않은 ‘인제’였으며,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부패가 결합한 국가적 범죄였다. 사고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의 외침은 번번이 외면당했다. “왜 아직도 그 얘기냐”는 차가운

시선,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악의적인 비난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렸다. 그들은 아이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싸워야 했다.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사회는 무관심했고, 때로는 가해자였다.

정부는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청와대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분명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일부는 여전히 공직에 남아 있다. 기록은 삭제되고, 거짓은 반복되며, 진실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채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1주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매년 4월이 되면 노란 리본이 달리

고, 추모식이 열린다. 그러나 4월을 지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간다. 잊혀져가는 기억 속에서, 참사의 교훈은 흐려지고 있다. 그러나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왜 침묵했는가? 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는가?

기억은 단순한 감정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이고, 약속이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연 세월호 이전과 달라졌는가?

세월호는 잊혀서는 안 될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미래를 위한

경고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거울이다.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비극을 반복한다. 잊지 말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을 살아가고 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억은 책임이고, 행동이며, 변화의 시작이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 위 내용은 학보의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최지우 편집국장 (010-6471-8956)에게 문의해주세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인간존재에 대한 감정적 쏠림으로

오랜만에 스무 살의 글을 봤다. 그곳에는 육지에 막 올라온 생선처럼 팔딱거리는 생을 감각하며 스스로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고자 하는 이가 있다.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진정한 체험은 끝없는 사유에 있다며 머리 아픈 소리를 하는 이가 있다. 문장을 훑으면서 애뜻함을 느꼈으나 단지 그뿐이었다. 살다 보면 무뎌지는 것도 축복이라지만, 무감하게 살아봐도 불의에 예민한 삶보다 나은 점은 도통 모르겠다.

인간은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주체적 존재임과 동시에 무리 짓는 동물로서 전체 중 일부로 살아가는 것이다. 먼저 ‘실존’이란 단순히 숨 쉬는 상태가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과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에 의문이 드는 섬뜩한 때가 있

다. 인간이 도구적 존재로서, 기능적 의미만을 발휘하는 자본주의 세계에 아무 저항 없이 몸을 맡기는 모습을 발견하는 찰나가 그러하다. 이전 그 섬뜩함마저 희미해진다면, 존재론적 위기가 턱 끝까지 차오른 순간이 아닐까. 누군가의 부속물로, 사회의 부품으로 기능하는 삶에 순응하는 것은 죽음과 비슷하다. 그렇기에 주체로서 억압적인 현실을 인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우리는 전체의 일부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세상은 결국 모두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노인이 고달픈 사회는 언제나 나이들 청년들에게 각박한 미래를 예고하고, 장애인에게 역센 세상은 몸이 불편해지거나 다친 모두를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앉힌다. 또, 노동

계가 투쟁하는 최저임금은 알바하는 모든 이의 삶에 직결된다.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투쟁을 축발하는 사회적 통증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사회 구성원에게, 특히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한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으므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지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크게 분노했다. 땅에 발 딛고 자라온 모든 이들,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웃들, 같은 종의 포유류를 부리며 살아가는 무도한 자들. 분명 그들에 대한 연민과 분노, 동질감을 지니고 있었다. 바라는 세상이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절망했고, 타인과의 강렬한 공명을 느끼며 아픔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고작 대학 4년에 무엇이 마모됐는지 이제는 ‘현실이

그런 거지’하며 추락한 인간존재를 대충 얼버무리고 만다.

그러나 모두가 불합리한 세상에 자연스레 섞여 살아가는 듯 보이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은 사무치게 외로울 뿐더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괴짜처럼 느껴진다. 다들 앞으로 행진할 때, 홀로 뒤로 가는 감각과 비슷하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는 압박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편해진다. 물살을 가르는 것보다 몸을 맡기는 편이 안락해 계속해서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에 젖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대학원생으로서, 그 이전의 사회학도이자 한 개인으로서 강력한 자아와 살아가는 이들과의 연결고리가 녹슬었다는 자각은 아쉬움을 넘어선 좌절로 다가온다. 아무런 감정적 쏠림 없이, 인류에 대한 사랑

없이,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없이 부정(不正)에 타협하려 한다.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한 번 분노해 본 경험에 있다면 더욱 빠르게 감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예감을 덧붙이면, 만약 무뎌지는 게 어른의 일이라면 영원한 아이로 남아도 좋다는 치기어린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죄의식과 책임에 몸부림치더라도 타인의 곁에 자리한 채 치열하게 분노하고,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싶다. 그 괴로움이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지닌 채 진정한 살아감을 위해 심사숙고하고자 한다.

※ 위 칼럼은 기자 개인의 생각으로, 〈한신학보〉 전체의 방향성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다인 기자

기자가
사는
세상층간소음이 무너뜨린 이웃 간의 정,
해답은 이해와 배려

정부는 수도권 밀집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신도시 개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는 주택 중심에서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했고 아파트 숲이라 불리는 새로운 도시 풍경이 만들어졌다. 고층 아파트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세대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혔다. 하지만 층간소음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이웃 간의 정서적 거리는 멀어지게 했다. 결국 ‘이웃사촌’이라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한국 사회에서 점차 붕괴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통과 유대가 상실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층간소음 관련 통계들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만 624건에 불과했던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2023년 4만 4,204건으로4204건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리서치 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층간소음 이슈 관련 인식 조사를 보면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대해 ‘화가 날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소음이 자주 발생할수록 정서적 불안감, 스트레스, 이웃 관계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력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

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분노한 A 씨가 1m에 달하는 흥기를 들고 윗집 주민을 협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경기도 양주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이웃 주민의 현관문에 액자와 동물 분뇨를 뿌린 B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두 사건은 과거 이웃사촌이 내는 일상 속 ‘소리’가 현재는 윗집 거주민이 내는 ‘소음’으로 인식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됐음을 보여준다.

물론 층간소음의 원인을 단순히 공동체 의식의 부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건설사의 부실 공사와 방음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설계와 방음 시설이 갖춰지더라도 이웃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이 없다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웃 간 소통 부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기적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한국 사회에서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개인은 더욱 고립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다. 얼음이 깨지기 쉬운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 결여돼 얼어붙은 사회는 위기에 취약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

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웃 간의 소통이 사라진 오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마주치는 이웃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은 어려운 행동이 아니다. 우리는 사소한 시도를 발판 삼아 사회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재건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할 기로에 놓여 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세상 전체를 훈훈하게 데우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

을 기억하자.

※ 위 칼럼은 기자 개인의 생각으로, 〈한신학보〉 전체의 방향성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윤찬우 기자